

진리의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4)

붓다 경험주의의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에 의하면, 형이상학적 범주에 적용하는 유·무 판단명제는 검증 불가능한 무의미한 질문이므로 탐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온전한 경험·실재의 경험이어야 한다'는 원리에 의하면, 형이상학적 유·무 판단명제들은 '경험적 실재에서 일탈한 왜곡된 사변적 견해'를로서 '온전한 경험·실재의 경험' 가능성을 장애하므로, 이런 견해들에 몰두하면 할수록 개념적 독단과 환각의 빛에 걸려들어 해탈·열반의 삶에서 멀어진다. 따라서 붓다 경험주의의 두 번째 원리에 의해서도, 경험적 실재를 왜곡하는 실체론적 개념의 유·무 판단에 의거한 형이상학적 질문들은 거부되어야 한다.

실체론적 유·무 판단은 경험적 실재를 왜곡하는 개념적 환각이지만, 형이상학의 수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세계의 개념적 이해와 분석에서도 널리 채택된다. 무기설에 등장하는 형이상학적 명제의 조건이 되는 유·무 판단은 붓다 경험주의의 원리에 의해 거부된다. 그런데 경험세계와 연루된 유·무 판단은 어떻게 될까? 이 유·무 판단에 의거한 명제와 이론들은, 경험 가능한 것들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붓다 경험주의의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에 충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경험·실재의 경험이어야 한다'는 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론적 유·무 판단은 '온전한 경험·실재의 경험'에 접속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험의 실재를 은폐 내지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경험세계를 대상으로 한 실체론적 유·무 판단에 대해서, 붓다는 침묵이 아닌 언설로써 대처한다. 답변이나 설명의 거부방식(無記)이 아니라, 실제로 상응하는 언어에 의해 비판하고 치유한다. 연기 통찰에 의거한 '연기적 방식의 언어와 논리'로써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붓다의 경험주의는, 경험 가능한 현상들의 '모든'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붓다의 경험주의는 물리적·의학적·천문학적·생물학적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탐욕·분노·무지와 연관된 문제 범주를 대상으로 삼는다. 경험세계의 과학적 탐구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붓다 경험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영역은 탐·진·치를 조건으로 성립한 문제들로 특화되어 있다.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답변을 거부한 또 하나의 철학적 이유인 실존 실용

주의의 문제는 아래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실존 실용주의적 진리관과 탐진치

실존 실용주의는 '탐욕·분노·무지를 축으로 삼는 삶의 실존적 오염과 왜곡을 치유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증시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탐·진·치를 조건으로 발생한 실존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풀어주는 힘, 그 문제해결 능력을, 진리의 자격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이 실존 실용주의이다. 붓다가 밝힌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한 설명거부의 이유들은, 탐·진·치의 실존오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만을 진리의 이름으로 설하겠다는 실존 실용주의의 천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존 실용주의는 <심사빠 숲 경>과 <갈라마경>에서도 명확하게 표명된다. 붓다가 심사빠 숲에 머물 때 나뭇잎을 비유 삼아 설한 가르침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법 가운데 오직 탐·진·치에 연루된



부처님 성도 성지에 세워진 마하보디 사원. 부처님에게 진리란, 고(苦)를 경험하게 하는 실존의 문제 상황에 적용되어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해법이다.

진리는 실존적 문제에 대한 해법

“직접 검증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진리판별의 기준으로 부적절하다”

실존의 근원적 결핍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것만을 선택하여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설한다는 붓다의 명시적 입장이다. 붓다에게 진리란, 고(苦)dukkha, 삶의 근원적 불안)를 경험하게 하는 실존의 문제 상황에 적용되어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해법이다. 달리 말해, 탐·진·치에서 발생하는 실존의 근원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지식이나 이론은 붓다의 관심사가 아니며, 그런 지식이나 이론을 진리의 이름으로 탐구하지도 않았고 또 설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붓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주장과 이론의 진리치를 판별하는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관철된다. 삶에 적용했을 나타나는 탐·진·치의 증가·감소를 나타내어 어떤 가르침의 진리치를 판단하라는 <갈라마경>의 가르침은 그 전형이다.

철학적 탐구력이 돋보이는 갈라마인들이 붓다에게 묻는다. '사람들이 설하는 진리의 내용은 각기 다르다. 게다가 각자 자신의 가르침은 진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고 비난한다. 도대체 어떤 가

르침의 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진리 판별의 기준이 없다보니,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만 더해 간다. 붓다 당신은 무엇을 진리 판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에 대한 붓다의 응답에는 진리에 대한 경험주의 및 실존 실용주의의 태도가 종횡되어 있다.

“(1) 그대들이 의문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 갈라마인들이여, 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거들 들어 얻어진 지식이라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거나 해서, 추론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이유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인물이 말한 것이라 해서, 혹은 '이분은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말라.

(2) 갈라마인들이여, 스스로 생각하여 '이 가르침대로 따라 행하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버리도록 하라. 또한 스스로 생각하여 '이 가르침대로 따라 행하면 이롭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대로 받아들여 살도록 하라.

(3) 어떻게 생각하는가, 갈라마인들이여.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분노, 무지)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에게 이로움이 되었는가, 해로움이 되었는가? <갈라마인> 해롭습니다. 혼자서여. <붓다> 그렇다. 그 사람은 탐욕(분노, 무지)에 빠져 그 탐욕(분노, 무지)에 압도되고 정복되었기에 산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갖게 되고, 불륜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만들고 만다. 그리하여 해로움과 괴로움이 오르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갈라마인들이여.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분노, 무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이로움이 되었는가, 해로움이 되었는가? <갈라마인> 이롭습니다. 혼자서여. <붓다> 그렇다. 그 사람은 탐욕(분노, 무지)에 빠지지 않고 탐욕(분노, 무지)에 압도되거나 정복되지 않아서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은 갖지 않으며, 불륜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인도한다. 그리하여 이로움과 행복이 오래가게 된다. 갈라마인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탐욕을 여의고 분노를 여의고 무지를 벗어나 올바르게 깨어있다.”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가장 좋은 의사는 자기 자신

불교에서는 부처를 의왕(醫王)이라고 부른다. 여러 부처의 명호 중에는 약사여래(藥師如來)라는 이름도 끼어 있다. 큰 사찰에 가게 되면 약사전(藥師殿)이라고 쓰여있는 건물을 볼 수 있는데 그 건물에 모셔져 있는, 한 손에 약병을 들고 있는 분이 약사여래다.

하나 중생들의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여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내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내 자신이 곧 약사여래요, 의왕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병은 자신의 마음 작용에서 비롯되었으며 마음의 자세에 따라 병 또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병은 자신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망상하고 있는 데서 병의 뿌리는 자신도 모르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육체는 정직하다. 모든 병 또한 정

가짜 치료를 하고 있다.

그 중에는 돈만 아는 약질 의사와 끼어 있었지만 무한한 인체의 신비와 유한한 의과학의 한계에 부딪쳐 의사가 아닌 의사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 침술을 배우며 알게 된 일이지만 한의사가 열 개의 침을 놓을 경우 그 절반인 다섯 개는 치료와는 무관한 곳에 꽂혀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침술 의사는 400곳이 넘는 혈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정확하게 침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들 말하지만 모든 병은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마음은 만병을 썩 뿌려 키우는 밭이 되기도 하고, 만병의 원인을 다스려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건강의 파수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는 아홉 개의 입이 있다. 코는 냄새 맡는 입이요, 귀는 듣는 입이다. 눈을 보는 입이요, 향문과 생식기는 배설하는 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홉 개의 입의 유혹에

유혹 못 이겨 잘못된 습관으로 病 키워 병은 마음에서 비롯... 치료보다 예방을

직하다. 마음 작용으로 인해 육체가 튼튼이 생겼을 때 병마(病魔)는 빠르게 그 틈 사이로 끼어들는다. 그럴 경우 육체는 병균의 침입을 알리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때로는 아픔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와 육체의 호소를 아예 무시하거나 생활에 쫓겨 잊어버려 버리고 만다.

기껏해야 육체의 호소를 업살쯤으로 여기고 엉뚱하게도 몸살약이나 흔해 빠진 감기약 복용으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픔이 심할 경우에도 진통제 복용으로 건강을 보장 받으려는 마음 편한 생각을 하지만 병은 정직하고 육체 또한 정직하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끼어 있기 마련이다. 약은 체내에 들어와서 한 가지 병을 고치고 두세 가지 병을 낫게도 떠나간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세상 사람들의 약사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만은 습사리 약을 먹이지 않는다.

세상의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은 30%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은 대부분이 50%는 가짜 처방에

못 이겨 건강에 나쁜지 알면서도, 습관이라는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비만을 온갖 병을 키우는 온실입이 분명하면서도 입의 유혹에 끊임없이 결심과 포기를 거듭하면서 몸의 평수만 늘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답배와 술, 색을 밝히는 사람들의 경우도 비슷할 터이다.

신체 중 제일 건강했던 곳이 자신이 모르게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고 또한 건강이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적은 것으로 만족을 삼고, 둘째는 무리하게 서들지 않으며, 셋째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것이다.

실천이 쉽지 않았지만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터이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당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려면 누구나 기반상

나만의 청정세계 기반상

기반상

기반상

기반상

기반상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 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 <본초강목>, 허준선생의 <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향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격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